

# 미국대학 신입생 40년 간의 추이(I) : 1966년부터 2006년 까지

2009. 09. 02. (수) | 김지현(서울대)·김신애(열린지성 해외정보원)

\* 본 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의 교육 및 문헌정보대학원 소속 고등교육연구소 (HERI: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가 CIRP(The Coope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와 공동으로 진행한 '신입생 설문조사 연구보고서(2006)'의 핵심내용 가운데 1. 인구학적 변화, 2. 다문화 사회를 위한 준비: 태도와 상호교류, 3. 정치와의 연계, 그리고 여러 관점들 4. 학생들의 가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이타주의 부분을 소개한 것이다. 이어지는 (II) 편에서는 5. 대학 수준의 학업을 위한 준비, 6. 보충학습 추이, 7. 학업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8. 기타 핵심적인 학업요소, 9. 대학신입생들 사이에서 테크놀로지 사용, 10. 생명공학과 의학에 대한 흥미 증가와 여학생의 주도, 11. 그리고 대학교육의 기회와 선택에 관한 부분이 이어서 소개될 예정이다.

CIRP의 신입생 설문조사는 YFCY (Your First College Year)와 CSS (College Senior Survey)를 포함한 일련의 연속적 평가프로그램의 기초작업으로서 설계되었는데, 미국대학 학생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가장 장기적인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이 설문조사는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0년간 미국 대학 신입생의 변화추이를 총 정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내 기초교양교육 분야가 신입생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에 대한 기초적이며 장기적인 연구와 자료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 1. 인구학적 변화

지난 40년 동안 미국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수가 전례없이 늘어난 것이고, 여성과 유색인종, 전일제 학생,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에도 상당한 변화가 수반된 것이다. 1972년부터 2004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49%에서 6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생수는 2년제보다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NCES, 2006). 이러한 변화는 여성운동과 시민권 운동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1965년의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1978년의 중산층 학생 보조법(Middle-Income Student Assistance Act)과 같은 법 제정과 학생들의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유동적으로 공급되고 학생들의 선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등록금 보조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Pell Grants, Perkins Loans, Stafford Loans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한 대학신입생들의 인종/민족별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1971년에는 전일제 학생 중에 90.9%가 백인학생들이었으나 2006년에는 76.5%로 줄어들었다. 아시아계/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십 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여 1971년에는 전체 대학신입생의 0.6%였던 것이 지금은 8.6%에 이르고 있다. 비록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시작하는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지만, 학사학위 기관에 들어오는 라틴계 학생들 또한 1971년에 0.06%였다가 2006년의 7.3%로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학생들은 1971년에는 대학신입생의 7.5%를 차지했다가 1980년에는 모든 대학생 중 12.5%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모든 학사학위 수여기관 (전통적으로 흑인 컬리지였거나 흑인 유니버시티였던 기관들 또는 HBCU를 포함해서)의 10.5%를 기록하며 감소하였다(Allen, Jayakumar, Griffin, Korn, & Hurtado, 2005).

이러한 학생구성의 변화는 미국의 인구학적 변동, 컬리지 입학기준의 변화('인종주의' 차원 '인종중립'적인 기준으로의 전환), 그리고 다양한 집단을 위한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접근도가 높아지고 다양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CIRP 신입생 설문조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인종/민족적 정체성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인이 아닌 학생들의 인종/민족적 구성도 구분하여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CIRP 조사에서는 다인종/다민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 또는 스스로 하나 이상의 인종적, 민족적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1971년의 1.3%에서 2006년의 7.4%로 증가).

대학캠퍼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다양화되는 동시에 대학생들의 부모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욱 확립되고 있다. 미국 신입생들의 기타 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대학에 다니는 전일제 여학생들이 안정적인 다수가 되었다. 여학생의 비율은 1971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1976년에는 남학생수와 같아지고, 2001년에는 전체 신입생의 55%를 구성하며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여학생들이 중도하차율이 적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까닭으로,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Astin, Green & Korn, 1987; Astin, Parrott, Korn, & Sax, 1997).

둘째, 종교적인 선호가 줄어들었다. 종교적인 연계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966년에 13.6%었던 것이 2006년에는 19.1%로 늘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개신교(기독교)로 묶인 항목에서 보이고 있는데, 과반수 이상(54.5%)이었던 것이 48.0%로 이동하였다. 카톨릭 신자들은 꽤 안정적으로 남아있으며, 현재 27.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현저한 감소추세가 나타났다(4.9%에서 2.6%로 감소). 부모 사이의 종교적 연계도 비슷하게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 2006년에 4분의 3(76.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다녔던 마지막 해에 종교의식에 참석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1968년(91.1%)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셋째,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연령층이 높아졌다. 오늘날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67%이지만, 이것은 최근에 이르러서 생긴 변화이다. 1967년에는 대학신입생들의 80.5%가 18세였고, 13.7%만이 19세이거나 그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었다. 2006년까지, 18세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68.5%였고, 19세 이상의 학생들의 비율이 29.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변동은 이 설문조사의 처음 20년보다 나중 20년 동안 더 두드러졌다. 아마도 얼마간의 학생들이 새로운 학업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립고등학교 졸업 후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듯하다.

넷째, 학업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습장애를 보이는 신입생들의 비율은 2004년에 2.8%가 되었다(장애에 대해서 묻은 가장 최근 년도). 1983년의 0.5%의 다섯 배 이상이다. 학습장애 학생수의 증가는 초등, 중고등 학교에서의 비율과 거의 같다(NCES, 2006).

다섯째, 부모가 결혼했거나 동거한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1972년에 우리는 학부모의 결혼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당시 84.8%의 학부모들이 동거하였으며, 7.9%가 떨어져 살았다. 그리고 7.3%의 학생들의 한쪽 또는 양쪽의 부모와 사별했다. 2006년까지 두 부모가 함께 사는 학생들의 비율이 71.2%로 감소했고, 부모가 떨어져 사는 학생들은 4명에 1명꼴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부모와 사별한 학생들의 비율은 3.7%로 감소했다.

여섯째, 신입생 학부모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학신입생들의 학부모들의 소득은 평균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모두에서 일어났으나 공교육기관

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입생 중에서 교육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걱정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06년에 11.6%로 나타났다. 1971년이 가장 낮은 수치로 역시 11.6%이기는 했지만, 1995년의 19.1%에 비하면 많이 내려간 것이다. College Board (2006)에 따르면, 1981년과 82년 사이, 1986년과 87년 사이에 5년 단위 등록금 인상률이 공립대학에서 2006년 고정 달러가치로 환산할 때 31%가 변화하였다. 같은 시기에, 4년제 사립대학에서는 등록금이 36% 인상되었다. 이는 연방정부차원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관한 재정정책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정부의 정책 또한 필요보다 이익본위로 전환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주정부, 개별 고등교육기관들의 재정정책이 계속 이러한 방향이었다면, 우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진학 시장시장에서 도태되어 다른 길 (2년제 컬리지, 이윤추구를 위한 고등교육, 원격학습 등)을 택하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4년제 대학 입학이라는 측면에서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1979년부터 새로운 세기의 초반까지 벌어져 왔으며 경제적인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Neckerman, 2004).

## 2. 다문화 사회를 위한 준비: 태도와 상호교류

지난 40년간의 CIRP 신입생 설문조사는 학사학위 수여 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보다 다양해지는 반면, 사회경제적으로는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학부모 소득주수와 학력의 측면에서). 그러나 인종/민족적 경험과 인종포용력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노동시장과 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해야 하는 신입생들에게 보다 뚜렷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가 학생들의 출신지역과 고등학교의 인종구성을 알아보기 시작한 해인 1983년에는 78.5%의 신입생들이 대부분 또는 완전히 백인계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85.1%가 대부분 또는 완전히 백인들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성장했다. 2006년에는, 64.1%만이 대부분 또는 완전히 백인계 고등학교에서 왔으며, 73.7%가 대부분 또는 완전히 백인들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성장했다고 답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대학이전 학교교육에서 무백인 환경에 있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집단은 또 백인계 학교와 지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Pryor, Hurtado, Saenz, Korn, Santos, & Korn, 2006). 아시아계와 라틴계 지역의 학생들도 20년전에 비해서, 백인지역출신일 가능성이 대단히 적다. 이것은 그들이 혼인종 학교나 지역출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다인종/다민족적인 상호교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더 조사하였는데, 2006년에는 3분의 2 이상 (66.9%)의 학생들이 그들이 다른 인종/민족집단과 고등학교에서 어울렸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이 비율은 65%에서 70% 사이를 오고 갔는데, 1992년 (우리가 이 질문을 처음 물었을 때)에는 58.4%였다.

인종/민족 간 상호교류에 대한 신입생들의 목표와 신념 항목을 살펴보면, 인종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1992년에 46.4%로 최고조에 이룬 후 감소하여 지금은 34%가 되었다.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인종/민족적 상호교류를 했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입학 전에 의미있는 교류를 해봤을 것 같지 않은 지역에서 살거나 학교를 다닌다. 한 가지 긍정적인 보고는 9/11 이후에, 모든 학생들이 다른 국가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2년에 43.2%에서 2006년에 49.1%로).

## 3. 정치와의 연계, 그리고 여러 관점들

정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이 질문이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던져진 해인 1970년에는, 35.7%의 학생들이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규정했으나, 이 수치는 1976년에 30%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2006년에는 28.4%가 되었다. 보수주의자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학생들은 2006년에 가장 높았다(23.9%). 시대별

로 이 추이는 주기형태를 띠고 있지만, 1999년 이래로 중도성향에서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로 옮겨가는 경향이 보인다. 아래 조사에서는 자유주의와 극좌를 하나의 범주로 하고, 보수주의와 극우를 한데 묶었다.

낙태합법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주기적인 패턴이 있지만,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특징적인 것은, 자유주의/극좌 학생들과 보수주의/극우 학생들 간에 커다란 의견차가 드러나 1977년에 낙태에 대한 동의비율 차이가 21.1%였던 것이 2006년에 46.5%로 증가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법을 지지하는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질문을 처음 던졌던 1976년에는 그러한 법안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팽배했던 것(43.6% 지지)이 2006년에는 25.6%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여기에서도 자유주의/극좌 학생들과 보수주의/극우 학생들 간의 격차 22.7%에서 37%로 늘어났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진 학생이든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적 학생들은 자유주의적 학생들에 비해 의견이 변화하는 경우가 적은 듯 하다. 대학입학에 있어서 역차별이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9년 동안 자유주의/극좌 학생들과 중도학생들의 추이가 45%로 매우 비슷했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남아있었다.

자유주의적인 학생들과 보수주의적인 학생들은 특정한 정치사회적 견해에 대해서는 더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학생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보수주의(그리고 극우) 학생들의 반 이상(55.1%)은 대학이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학생들을 금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비해서 자유주의적 (그리고 극좌) 학생들은 28.5%만이 이에 동의한다. 따라서, 특정 이슈만이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시민담론을 증대하는 것이 학생담당 직원과 교수진에게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 4. 학생들의 가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이타주의

오늘날의 학생들이 과거의 학생들보다 더 물질적인가? 대중매체는 사람들이 시민의 정치무관심과 더불어 물질주의가 통치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CIRP 신입생 설문조사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학생들이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하다고”고 생각하는 제 1 순위의 개인적인 목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되는 것” 과 같은 목표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민 제 1세대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의 비중을 높게 두는 경향이 있다 (Allen et al., 2005). 그러나 이것이 새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만인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는 학생들의 비율은 1966년과 1987년 사이에도 높았으며(42.2%에서 74.1%로), 그때 이후로 매우 안정적인 비율 (2006년에 73.4%)로 남아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관심을 추동하고 뒷받침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신분하강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임금이다. 기술발전의 파도를 타는 젊은 기업가들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주정부 차원의 복권)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손 닿는 데에 있다는 관념을 전달한다.

반면에, 몇 십 년에 걸쳐서 존재하는 또 다른 추이는 “의미있는 삶의 철학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개인적 목표라고 답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967년의 85.8%에서 2003년의 39.3%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응답비율이 46.3%로 상승했다. 이것은 학생들이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강한 압력에 직면하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가져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적인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부활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이 66.7%를 기록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최고 수치이다 (1986년과 비교해서). 그리고 2006년에는 신입생들 사이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치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 지역사회 봉사과 자원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1990년에 이 항목이 추가되었을 때, 신입생들의 16.9%가 대학생활에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응답은 2006년에 26.8%가 되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대하여 2 대 1로 많은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문헌

- Allen, W. R., Jayakumar, U. M., Griffin, K. A., Korn, W. S., & Hurtado, S. (2005). Black Undergraduates from Bakke to Grutter: Freshmen Status, Trends, and Prospects, 1971-2004. Los Angel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CLA.
- Astin, A. W., Green, K. C., & Korn, W. S. (1987). The American Freshman: Twenty Year Trends. Los Angel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CLA.
- College Board (2006). Trends in College Pricing and Financial Aid 2006.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collegeboard.com/press/releases/150634.html>.
- Neckerman, K. (Ed.) (2004). Social Inequali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 (2006).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6.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Retrieved from <http://nces.ed.gov/programs/coe/index.asp>.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